

■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베트남 부동산과 유통 시장에 확대 투자하는 일본 자본

지난 4월 21일 도쿄에서는 제 4차 일본과 메콩지역국가(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5개국) 정상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3년간 이 지역에 8조 원대의 개발원조(ODA)를 약속했습니다.¹

베트남 수상 Nguyen Tan Dung은 일본 정부의 개발원조를 환영하면서, 메콩강 유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관광 개발과 육로와 해상 및 복합운송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베트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한 바 있습니다.²

2012년 1월 1일~3월 20일까지 베트남에 외국인신규투자금액은 22억 불이었고 그 자금의 대부분인 20억 불은 일본이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본 자본의 투자처는 원부자재와 설비를 들여와서 공장을 건설하고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과 유통업 직접 투자 및 M&A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자본의 대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투자 경향성이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현지 언론의 견해도 있고 이와 같은 투자 경향으로 언급되고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³

일본계 유통회사 AEON은 베트남에 소매점 MiniStop을 확장해가면서 3.5헥타 규모의 쇼핑몰 개발계획과 함께 향후 10년간 1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계 기업의 베트남 내수 시장의 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기업의 지분취득과 인수합병 형태의 투자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용품 전문업체 유니참(Unicharm)은 1억 2천만 불에 상당하는 Diana Vietnam의 지분 95%를 취득했고 Kirin Holding은 베트남 음료시장의 선두기업인 Interfood Shareholding의 주식을 57%를 매입했고 Daio Paper는 Saigon Paper의 지분을 취득했으며 Ezaki Glico Group은 현지 식품회사 Kinh Do Group의 10%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베트남 부동산은 일본 자본을 유인하는 매력적인 영역은 아니었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호치민 시내 빌딩 Center Point는 일본계 펀드에게 매각되었습니다. Tokyu Corporation은 베트남 기업 Becamex IDC와 합작으로 호치민시 인근 빈증성 신도시 개발에 12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대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배경에는 고금리와 신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베트남 금융환경하에서 현지 기업들이 지분매각을 통해 경영상 활로를 모색하려는 경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대규모 개발원조 정책과 엔화 강세에 힘입은 일본 기업들의 자본이 베트남을 발판으로 동남아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지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

- 1 [일본, 메콩강 5개국에 8조3000억 원 개발원조 - 경향신문\(2012. 4. 22.\)](#)
[일본, 메콩강 개발에 8조 원 지원...중국 진출에 대항 - 매일경제\(2012. 4. 22.\)](#)
- 2 [Vietnam supports Mekong-Japan cooperation - Vietnam Investment Review\(2012. 4. 21.\)](#)
- 3 [The new tendency in Japanese FDI in Vietnam - Vietnamnet\(2012. 4. 19.\)](#)